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선포 5주년 기념

장애인은 도와줘야 할 사람?

- 장애인 인권에 관한 비장애인 여론조사 -



2003. 12. 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TNS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선포 5주년 기념

장애인은 도와줘야 할 사람?

- 장애인 인권에 관한 비장애인 인식조사 결과 발표 순서-

일시 : 2003년 12월 3일

장소 : 실업극복국민재단 회의실

진행 :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조사결과 발표 _____ 이충호(TNS 이사)
- 조사 배경 및 함의 _____ 박옥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부장)
- 질의 응답

목 차

【 서론 】 3

1. 조사 설계
2. 조사연구의 한계 및 의미

【 조사 개요 】 6

1. 조사 결과
2. 응답자 특성

【 조사 결과 】 8

1. 장애인에 대한 인식
2. 주변에서의 장애인 차별 목격/인지 경험
3. 장애인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
4.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5. 장애인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6. 장애인 시설 반대의 이유
7. 장애학생과의 공동 수업에 대한 태도
8. 장애인 신규사원 채용 의사
9.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인식
10. 장애인을 위한 기부/봉사활동 의향
11. 정부의 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요구 필요성

【 요약 및 시사점 】 25

- ▣ 별첨 1. 통계 편
- ▣ 별첨 2. 설문지
- ▣ 부록
 - TNS 소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개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선포 5주년 기념

장애인은 도와줘야 할 사람? - 장애인 인권에 관한 비장애인 인식조사 -

I. 서론

이 조사는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선포 5주년을 맞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TNS가 함께 '장애인 인권'에 관한 비장애인의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공동으로 기획된 조사이다.

98년 장애인인권헌장 제정 선포는 김대중 전대통령을 '인권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 우리 사회는 인권 담론이 확대되었다. 과거의 인권단체들의 끊임없는 노고로 비롯되었으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심수 사면과 복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및 국가설립위원회 설치 등 인권에 관한 사회적 기틀이 세워진 시기인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보다 더욱 진보적이라는 현 정권 하에서 여전히 양심수 석방 문제, 집시법 개악 분위기 등 여전히 우리 사회 인권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장애인인권도 그 모양은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장애인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라는 분명한 문제의식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장애인과 관련된 4대 법률이 제, 개정되어 시행되고, 하물며 98년에는 장애인인권헌장이 선포되었지만, 장애 차별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이다.

지난 4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TNS가 공동으로 기획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이 70%에 이른다. 길가에서 결눈으로 힐끗 힐끗 쳐다보는 비장애인의 시선을 무시하기엔 너무 벅차다. 장애인 시설 설치를 아직도 목숨 걸고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절하는 학교, 직업을 가져할 시기가 되었지만 입사원서조차 받아주지 않으며 입사 후에도 임금·승진·배치 등 각종인사에서 불이익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동에서의 차별, 정보접근의 불균형 등 아주 다양한 형태로 차별을 받고 있다.

최소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4대 법률이 있음에도, 선언적인
지만 제정된 장애인인권헌장이 있어도 이런 차별이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이유
는 다름 아닌 장애인에 관한 비장애인의 편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TNS는 차별의 근원적 이유, 즉 장애인 인권에
관한 비장애인의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수)은 3.09%이며, 전체인구 중 1,449,500명이 장애
인인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우리 나라의 등록된 장애인은 1,294,254명(약 1백
3십 만 명)이다.

1. 조사설계

이번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TNS 면접원의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모집
단은 전국 남녀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되 지역적 고려를 하였으며, 설문
응답자는 모두 1,000여명이다. 전화면접조사 시기는 2003년 12월 1일부터 2
일까지 조사를 실시했으며, 전화면접의 특성상 3차에 걸친 시도를 통해 전화설
문조사를 실시했다.

2. 조사연구의 한계와 의미

이 조사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비장애인의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전화
설문조사였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설문항목 수가 적어 좀더 심도 깊은 조사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전화 조사라 하더라도 직접 대화법에 의한 조사이기에, 피조사자가 조사
자의 평가를 의식하여,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문항에 답변을 함으로써
인식의 정확성을 떨어뜨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심도 깊은 조사를 위한 항목 조정과 전화보다는 설문지 작성을 통한 조사를 하여, 교차 분석을 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에 관한 비장애인 인식의 정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인권헌장이 선포된 이후, 나아가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제 개정된 장애 4대 법률이 있음에도, 여전히 차별적 상황에 놓여있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비장애인의 인식의 정도를 살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향후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장애인 차별 금지를 향한 장애인 운동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I. 조사목적 및 설계

본 조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TNS가 함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됨.

【1】 조사 방법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2】 표본 설계

모 집 단

만20세 이상 전국의 성인 남녀

표본크기

1,000명

표본추출

비례할당에 의한 층화 무작위 추출법

표본추출

± 3.1% (95% 신뢰수준)

【3】 조사 진행

조사시점

2003년 12월 1일 ~ 2일

조사기관

TNS

II. 응답자 특성

BASE : 전체 응답자	사례수	%
☐ 전 체 ☐	1,000	100.0
☐ 성 별 ☐ 남 자 여 자	495 505	49.5 50.5
☐ 연 령 별 ☐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세 이상	238 258 220 284	23.8 25.8 22.0 28.4
☐ 거주 지역 별 ☐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강원·제주	216 238 103 119 105 178 41	21.6 23.8 10.3 11.9 10.5 17.8 4.1
☐ 직업 별 ☐ 농림어업 자영업자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기타	47 175 116 150 326 66 122	4.7 17.5 11.6 15.0 32.6 6.6 12.2
☐ 학 력 별 ☐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205 389 402	20.5 38.9 40.2
☐ 소득 수준 별 ☐ 150만원이하 151~250만원 251만원이상	257 291 353	25.7 29.1 35.3

일반적인 장애인 인권의식 관련 여론 조사 결과

1.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71.4%			
질 문 ▶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생각해본적 없다	계
21.2%	71.4%	6.4	100.0%

○ 일반인 10명중 7명은 장애인에 대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1.2%로 나타남. 장애인인권헌장(이하 '인권헌장') 제 3조에서는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권헌장이 선포된 지 5년이 경과된 지금도 대다수 시민들은 장애인을 '도움을 받아야 할 비주체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어 차별적 인식이 심각한 수준임. 이는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주체로서가 아닌 시혜적 대상으로 다루는 언론의 보도태도 등 전반적 사회환경으로 인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장애인을 시혜적 대상이 아닌 동등한 사회참여의 주체로서 인식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평가 분석(%) 】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	도움을 받아야할 사람이다	생각해본적 없다	모름/무응답
전체	21.2	71.4	6.4	1.0
■ 지역별				
서울	20.6	72.3	6.0	1.1
인천/경기	19.2	75.1	4.6	1.1
대전/충청	25.6	67.4	7.1	0.0
광주/전라	20.8	69.9	8.7	0.6
대구/경북	26.3	65.6	7.6	0.6

[장애인 인권에 관한 비장애인 인식조사]

부산/울산/경남	19.9	70.7	7.5	1.9
■ 성 별				
남자	21.8	71.4	6.0	0.8
여자	20.5	71.5	6.8	1.1
■ 연령별				
20대	21.9	69.6	7.9	0.5
30대	31.2	63.1	4.6	1.2
40대	22.1	70.8	6.3	0.9
50대이상	10.8	81.1	6.9	1.2

- 장애인에 대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인천/경기(75.1%) ▶50대이상 연령층(81.1%) ▶중졸이하 학력층(75.2%)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대전/충청(25.6%), 대구/경북(26.3%) ▶30대 연령층(3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 주변에서의 장애인 차별 목적/인지 경험

장애인 차별 목적/인지 경험 여부, 68.4%			
질 문 ▶	언론이나 주변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것을 보거나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계
68.4%	30.0%	1.6%	100.0%

- 언론이나 주변에서 장애인이 차별 받는 것을 보거나 느낀 경험이 전체 응답자의 68.4%로 나타남. 이를 2003년 4월 실시된 '장애인차별에 관한 장애인여론조사결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TNS)와 비교해볼 때 73.7%가 "차별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그러나 대체적으로 장애여부를 떠나 10명중 7명의 사람이 장애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장애차별 정도가 심각하다는 보여주고 있음.
- 한편 1999년 실시된 장애인실태조사결과(장애인백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와 비교해볼 때 응답 장애인 중 86.7%가 장애차별을 경험했다는 결과와

종합해 볼 때 대체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차별에 대한 인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장애차별에 대한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할 정도로 장애차별의 정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30%정도의 사람들은 장애차별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과제로 남아있음

【응답자 특성별 분석(%)】

	있다	없다
전체	68.4	30.0
■ 지역별		
서울	71.4	27.7
인천/경기	66.5	32.0
대전/충청	70.7	28.6
광주/전라	69.4	27.7
대구/경북	74.1	23.0
부산/울산/경남	62.4	35.8
■ 성 별		
남자	69.2	29.3
여자	67.6	30.7
■ 연령별		
20대	78.5	21.5
30대	69.3	29.8
40대	69.7	28.0
50대이상	58.1	38.8

- 장애차별에 대한 인지경험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볼 때 거주지역은 ▶서울지역(71.4%), 대구/경북(74.1%)이 높게 나타났으나 대체적으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음
- 연령은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와 30대순으로 나타났는데 50대이상과 비교해 볼 때 젊은 층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보다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학력에 따른 장애차별인지경험에 대해서는 ▶대재이상 학력층(73.8%)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3. 장애인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

장애인문제로서 ‘장애인 시설(47.6%)’, ‘장애인 노동문제(41.6%)’ 가장 심각

질 문 ▶	있다면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편의시설	47.6%
노동	41.6%
이동권	39.3
교육	23.3%
기타	3.9%
모름/무응답	3.6%

-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47.6%가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노동, 이동권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시설’은 대체적으로 ‘편의시설’로 해석되나 간혹 ‘시설’을 ‘사회복지수용시설’로 인지하고 응답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이는 후속 연구에서 명확하게 분류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시설’을 ‘편의시설’로 해석할 때 비장애인의 대다수는 ‘편의시설과 이동권’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물리적인 사회환경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막고 있다”는 지점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이는 지난 몇 년간 치열하게 전개되어온 ‘이동권투쟁’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됨
- 이를 ‘장애인차별에 관한 장애인여론조사결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TNS) ‘가장 큰 차별영역’에 대해 36.4%가 노동문제, 34.5%가 이동의 문제를 꼽았음. 이와 비교할 때 장애인 당사자는 생존권 즉 노동의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느끼는데 비해 비장애인은 편의시설과 이동의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비장애인의 인식조사]

느끼고 있는 것으로 장애유무에 따른 차이를 드러냈음.

- 그러나 대체적으로 노동과 이동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음.
- 한편 교육에 대해서도 23.3%의 응답자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의 경우 대부분(2.9%)이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시선’을 주로 언급함
- 장애인관련 시설문제’는 ▶인천/경기지역(50.1%), 대전/충청지역(50.4%), 부산/울산/경남(53.6%) ▶30대 연령층(54.3%) 에서 특히 높게 언급됨
- ‘장애인 노동문제’는 ▶인천/경기지역(48.9%), 대구/경북지역(49.7%) ▶대재이상 학력층(45.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언급됨
-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 문제’는 ▶대구/경북지역(44.2%) ▶40대 연령층(45.3%) ▶고졸 학력층(45.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언급됨

【 응답자 특성별 평가 분석(%)】

	시설	노동	이동권	교육	기타
전체	47.6	41.6	39.3	23.3	3.9
■ 지역별					
서울	43.2	41.0	40.7	24.1	5.8
인천/경기	50.1	48.9	40.5	24.6	4.6
대전/충청	50.4	41.9	41.7	24.7	5.4
광주/전라	45.3	32.3	34.2	27.9	0.6
대구/경북	43.2	49.7	44.2	27.0	4.0
부산/울산/경남	53.6	37.4	38.6	16.2	2.3
■ 성 별					
남자	46.0	41.9	39.4	19.1	4.3
여자	49.2	41.3	39.2	27.4	3.5
■ 연령별					
20대	46.6	39.2	40.2	24.4	6.4
30대	54.3	43.4	43.0	22.9	2.5
40대	47.9	41.6	45.3	22.3	3.3
50대이상	42.1	42.0	30.6	23.6	3.4

■ 학력층					
중졸이하	41.6	43.8	29.5	20.7	1.9
고 졸	49.4	36.9	45.4	23.5	3.2
대재이상	48.8	45.3	38.5	24.8	5.6

4.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인식 개선' 이 시급하다, 44.5%

질 문 ▶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인식 개선	44.5%
예산의 확대	36.7%
법제도 마련	27.0%
정책의 변화	23.0%
기타	0.1%
모름/무응답	2.8%

- 장애인의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예산의 확대(36.7%)', '법제도 마련(27.0%)', '정책의 변화(23.0%)', '기타(0.1%)의 순으로 언급됨
- 이 역시 지난 4월 실시된 장애인차별에 관한 장애인 여론조사결과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다. 조사결과 차별문제 해결과제에 대해 32.5%가 사회 인식 변화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24.1%), 경제적 지원(24.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 및 법과 제도 등의 정책적 결단을 이끌어내는 기본 토대가 사회인식인 점을 반영하고 있음.
- '법제도 마련'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현행 장애관련 법제도가 장애차별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장애인 인권에 관한 비장애인 인식조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등 보다 실질적으로 장애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또한 응답자의 23%가 ‘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을 꼽았음. 이 역시 장애인복지정책이 장애차별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며 현 노무현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정책적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은 ▶부산/울산/경남지역(49.7%) ▶여성(47.4%) ▶20~30대 연령층(20대: 53.5%, 30대:50.8%) ▶고졸 학력층(47.4%) ▶자영업(48.7%), 학생(56.8%)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예산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은 ▶대구/경북지역(39.9%) ▶50대이상(39.9%) ▶화이트칼라(42.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구체적 경험과 사례를 통한 장애인 인식관련 조사 결과

5. 장애인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사는 동네의 장애인 시설 건립, '찬성한다', 90.6%			
질 문 ▶	만약 ○○님이 사는 동네에 장애인시설이 생긴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름/무응답	계
90.6%	3.7%	5.7%	100.0%

- 본인이 사는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 생길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서 전체의 대다수 응답자(90.6%)는 '찬성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3.7%에 그침. 조사결과만을 볼 때 90%이상이 장애인시설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장애인시설이 들어서는 곳이면 여지없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임.

- 이는 전화조사결과 조사자에 대해 1:1로 설문에 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도덕적으로 옳은 답변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점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한편 대다수 시민들의 개인적 인식과 관계없이 특정지역의 개발이익과 관련된 개발업자들에 의해 장애인시설건립에 대한 반대가 주도되어왔다는 의심을 갖게 함. 실제 장애인시설건립반대의 경우 주민의 이름을 빈 소수의 특정인들의 조직적 운동에 주도되어온 경향이 있었음

【응답자 특성별 분석(%)】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전체	90.6	3.7	전체	90.6	3.7
■ 지역별			■ 성별		
서울	90.6	3.9	남자	93.2	2.6
인천/경기	91.8	1.9	여자	88.0	4.8
대전/충청	88.4	3.8	■ 연령별		
광주/전라	91.9	4.8	20대	92.1	4.5
대구/경북	88.6	6.8	30대	91.4	2.8
부산/울산/경남	90.7	3.3	40대	93.5	1.5
			50대이상	86.3	5.5

- 본인 거주 동네의 장애인시설 건립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남자(93.2%) ▶ 40대 연령층(93.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대한다'는 응답은 ▶대구/경북지역(6.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6. [장애인 시설 반대의 경우] 이유(Base= 37명)

장애인 시설 주 반대 이유, '웬지 꺼림칙해서', 47.4%	
질문 ▶	(장애인시설 건립) 반대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웬지 꺼림칙해서	47.4%
땅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24.2%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10.6%
기타	9.4%
모름/무응답	8.2%
합계	100.0%

- 본인거주 동네 부근의 장애인시설 건립 반대이유로는 '웬지 꺼림칙해서'가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땅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24.2%)',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10.6%)', '기타(9.4%)'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장애인시설건립반대의 이유가 명확한 현실적 이유에 의해서 라기 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의한 것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사회적 노력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음

- 또한 장애인시설 건립 등을 계획할 때 사전에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장애인시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7. 장애학생과의 공동 수업에 대한 태도

장애학생과 본인자녀의 공동수업, '괜찮다', 95.2%	
질 문 ▶	만약에 ○○님의 자녀가 장애를 가진 학생과 같이 수업을 받게 된다면?
괜찮다	95.2%
싫다	3.0%
모름/무응답	1.8%
합계	100.0%

- 자신의 자녀와 장애학생과 같이 수업을 받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95.2%)는 '괜찮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싫다'의 반응은 3.0%에 그침
- 장애학생과의 공동수업 즉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는 95.2%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이 역시 실제 통합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장애학생에 대한 거부, 집단따돌림, 교육환경 미비 등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분석됨
- 그러나 조사결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통합교육에 대한 걸림들은 비장애인의 인식이라기 보다는 교육환경 미비, 장애인에 대한 인식교육의 부재 등의 사회환경에 의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응답자 특성별 분석(%)】

	괜찮다	싫다		괜찮다	싫다
전체	95.2	3.0	전체	95.2	3.0
■ 지역별			■ 성별		
서울	96.3	1.9	남자	97.1	2.0
인천/경기	95.7	2.0	여자	93.3	4.0
대전/충청	95.5	2.0	■ 연령별		
광주/전라	94.4	3.9	20대	96.5	2.9
대구/경북	95.0	3.9	30대	94.7	3.0
부산/울산/경남	94.3	4.6	40대	96.2	1.2
			50대이상	93.8	4.5

- 자신의 자녀와 장애학생과 같이 수업을 받는 것에 대해 '괜찮다'는 응답은 거의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고르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8. 장애인 신규직원 채용 의사

‘장애인 직원 채용의사 있다’, 90.0%			
질문 ▶	만약에 ○○님께서 기업의 사장이라면, 장애를 가진 신규직원 응시자가 일반 신규직원 응시자와 차이가 없다면 장애를 가진 신규직원 응시자를 채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채용의사 있다	채용의사 없다	모름/무응답	계
90.0%	4.9%	5.1%	100.0%

- 본 조사문항은 장애인이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 자신이 기업사장 일 경우 ‘장애인을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통해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실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장애인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음
- 조사결과 만약 자신이 기업 사장일 경우 ‘일반 응시자와 차이가 없다면 장애인 신규직원을 채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90.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채용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4.9%로 나타남
- 장애인차별에 관한 장애인여론조사 결과 차별경험이 가장 많은 분야는 노동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동 조사 결과 노동에서의 차별유형은 입사거부나 지

원제한이 31.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편의시설, 업무환경, 임금, 승진 등 인사차별 순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비교해 볼 때 장애인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능력을 검증 받기 이전단계에서 차별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장애인의 노동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노동시장 진입이전에 이루어지는 ‘채용전 신체검사’ 및 ‘원서제출 거부’ 등 진입전 차별에 대한 규제가 절실한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제도는 채용전 신체검사를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업무배치와 관계없이 응시자체를 제한하고 있음
- 한편 비장애인 신규사원과 능력의 차이가 없다면 전화설문조사의 특성상 도덕적으로 옳은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실제 기업주로서 채용하는 상황이 아닌 가정의 상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장애인 실업률은 비장애인 실업률에 비해 8-9배에 해당하는 28.1%(2000년 기준)임.
- 그러나 조사결과를 그대로 해석할 때 능력의 차이가 없는한 장애인직원을 채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은 장애인의 노동능력 개발과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사업주에 대한 지원 등의 사회적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응답자 특성별 분석(%)】

	채용의사 있음	채용의사 없음		채용의사 있음	채용의사 없음
전체	90.0	4.9	전체	90.0	4.9
■ 지역별			■ 성별		
서울	90.9	4.7	남자	89.5	6.5
인천/경기	89.1	5.5	여자	90.5	3.4
대전/충청	89.0	4.8	■ 연령별		
광주/전라	90.9	8.0	20대	93.1	3.9
대구/경북	87.4	5.4	30대	88.0	7.8
부산/울산/경남	92.9	1.7	40대	90.8	3.0
			50대이상	88.6	4.6

- '장애인 사원 채용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부산/울산/경남(92.9%) ▶20대 연령층(93.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 사원 채용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광주/전라(8.0%) ▶30대 연령층(7.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장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부담 관련 조사 결과

9.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인식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해야”, 95.4%

질 문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름/무응답
	95.4%	2.8%	1.8%
			계
			100.0%

- 대다수의 일반인(95.4%)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장애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늘리거나 세금에 부과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데 대한 비장애인의 저항이 높을 것이란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95%이상의 사람들이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 특성별 분석(%)】

	정부가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들여야 한다	정부가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들일 필요 없다		정부가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들여야 한다	정부가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들일 필요 없다
전체	95.4	2.8	전체	95.4	2.8
■ 지역별			■ 성별		
서울	95.9	3.0	남자	96.8	2.3
인천/경기	95.0	2.1	여자	94.1	3.3
대전/충청	95.8	3.3	■ 연령별		
광주/전라	94.1	5.9	20대	98.0	1.5
대구/경북	93.6	2.9	30대	97.9	1.8
부산/울산/경남	97.4	1.1	40대	95.5	2.7
			50대이상	91.0	5.0

-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비용부담에 공감하는 응답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공감하지 않는 의견은 ▶광주/전라지역(5.9%) ▶50대이상 연령층(5.0%)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

10. 장애인을 위한 기부/봉사활동 의향

장애인을 위한 기부/봉사활동 의향 있다", 85.3%			
질문 ▶	○○님께서 개인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부금을 내시거나, 사적인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의향이 있다	의향이 없다	모름/무응답	계
85.3%	11.4%	3.3%	100.0%

- “장애인을 위해 기부금기부나 봉사활동의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전체의 85.3%의 응답자들이 기부/봉사활동 의향이 있다고 언급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장애인을 위한 기부금기부나 봉사활동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11.4%로 나타남
- 85%이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기부와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제 장애인시설이나 단체들은 하나같이 기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열악한 상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음

【응답자 특성별 분석(%)】

	의향이 있다	의향이 없다		의향이 있다	의향이 없다
전체	85.3	11.4	전체	85.3	11.4
■ 지역별			■ 성별		
서울	80.4	16.4	남자	87.5	10.0
인천/경기	86.0	11.2	여자	83.2	12.9
대전/충청	84.4	12.4	■ 연령별		
광주/전라	86.2	10.5	20대	87.1	9.8
대구/경북	89.6	6.4	30대	88.4	8.1
부산/울산/경남	86.6	9.9	40대	87.8	10.4
			50대이상	79.0	16.6

- 장애인을 위한 기부금기부나 봉사활동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대구/경북지역(89.6%) ▶30대연령층(88.4%) ▶대재이상 학력층(90.1%)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기부/봉사활동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서울(16.4%) ▶50대이상(16.6%) ▶중졸이하 학력층(17.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1. 정부의 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 요구 필요성

“정부는 장애인 고용기업에 혜택을 주어야”, 43.0%	
질문 ▶	○○님께서도 정부가 기업들에게 월채어, 시각, 청각, 농장애 등 장애인의 고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고용기업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	43.0%
예,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36.8%
아니오,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17.7%
모름/무응답	2.5%
계	100.0%

- 정부가 기업에게 장애인 고용을 요구할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9.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그러나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답변도 17.7%를 차지했으며 지원을 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43%로 높게 나타났음.
- 조사결과를 면밀히 살펴볼 때 이는 장애인노동문제를 여전히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거나 의무고용제도의 강화 등을 통한 사회적 책임으로 보기보다는 개인적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을 나타냈음. 그러나 장애인 고용의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가장 차별이 심한 영역으로 개인적 노력이나 사업주에 대한 지원강화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 ‘장애인 고용기업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응답은 ▶광주/전라지역(46.6%), 부산/울산/경남지역(48.4%) ▶20대 연령층(49.7%) ▶대재이상 학력층(48.0%)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인천/경기지역(41.1%) ▶30~40대 연령층(30대: 40.2%, 40대: 39.9%) ▶고졸 학력층(42.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장애인 인권에 관한 비장애인 인식조사]

- 반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야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지역(25.0%) ▶중
 졸이하 학력층(23.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III. 요약 및 시사점

부족하니까 돕자?

지난 '98 년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이 선포되면서 우리 사회는 '장애인 인권'에 한걸음 다가서는 듯 했다. 특히 지난 10 여 년 동안 장애인 운동 진영은 '장애인 인권 확보'라를 화두를 풀어내기 위해, 숨 쉴 새 없이 달려왔다. 교육, 노동 등 최소한 기본적인 권리라도 갖겠다며 싸워,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 4 대 법률을 쟁취했다. 그런데, 아직도 장애인 차별은 여전하다. 지난 4 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TNS 가 공동으로 기획 조사한 바에 따르면 73.5%가 장애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8 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장애인 차별 조사와도 거의 일치한다. 5 년 전과 현재의 실상이 비슷한 것은, 향후 5 년 또는 10 년 후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오직 '인권' 과 '권리'만을 외치고, 그를 위해 열심히 뛰어왔는데, 그래서 법도 제정됐고, 인권헌장도 제정됐는데, 차별적 상황은 '그대로' 이다.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소위 차별의 구체적인 주체가 될 수 있을 비장애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 장애인 차별의 가장 확실한 지점으로 파악된 것은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비장애인의 인식이다. '돕다'는 타동사이다. 즉 장애인의 입장에서 '나'가 아닌 '상대방'이 중심이다. 장애인은 타인에게 의존하여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비장애인에 비해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부족해서 채워줘야겠다는 것이다.

차별적 상황은 '그대로'

그렇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 현실에서 많은 부분에서 부족을 느낀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서 느끼는 부족감보다 훨씬 더 많이 장애인은 느끼고 산다. 편의시설이 없어 마음먹은 대로 이동할 수 없다. 공부하고 싶은데 거부당하고, 어렵게 취직했더니, 승진, 임금차별에다가 직원들은 왕따도 불사한다. 이런 부족분은 현존하는 많은 제도와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적어도 복지, 고용, 교육, 편의시설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4 대 법률이 있음에도 이런 차별은 무수히 일어난다.

하물며 이런 법 제도조차 없는 다른 영역과 부문의 차별들은 말해 무엇하랴! 이런 상황이고 보니,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 할 '부족한' 사람들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지사고,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부족함이 제도 또는 정책 등 건강한 사회 환경 개선으로 메워진다면, 그래도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장애는 단지 불편함 일뿐, 비장애인과 별반 다르지 않고, 사회 환경이 개선된다면 사실 그 불편함도 사라질 뿐이다.

장애 차별 해소 열쇠는 인식개선?

언론이나 주변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는 것을 보거나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68.4%이다. 장애인 차별의 현주소를 가감 없이 드러낸 설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차별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점으로 시설 47.6%, 노동 41.6%, 이동권 39.3%, 교육 23.3%, 기타 3.9% 순으로 집계됐다. 과거의 장애인 차별 조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항목은 '노동'이었다. 여전히 2 위를 차지하며 그 위용을 자랑하지만, 이동권 연대 활동의 투쟁 등으로 편의시설 또는 이동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사람들의 문제 인식도 조금은 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인식 개선이 44.5%로 나타났다. 예산 확대 또는 법제도 마련, 정책 변화 등 다양한 답변들이 나타났지만, 장애인 차별 문제와 관련하여 장애계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한 '인식'의 문제가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본 조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본 설문에 참여한 비장애인의 도덕점수를 확인했는데, 자신의 지역에 장애인 시설 건립을 찬성하는데 90.6%, 장애 학생과의 통합교육 찬성에 95.2%, 장애인 신규 사원 채용 의사를 가진 비율이 90.0%로, 학점으로 따지자면 을 A(일명 을에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을 에이는 장애인 차별 경험이 73.1%, 장애인 실업률 28.1%,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역주민에 의한 장애인

시설 건립 반대, 통합교육현장에서의 장애 학생에 대한 왕따, 교육거부, 태어나 30 년만에 처음으로 외출하는 중증의 장애인,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열악한 시설에 갇혀 평생을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사실을 비웃는 듯 하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견주어 볼 때, 이러한 조사 결과는 장애 현실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것이다.

역시 장애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인식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긍정하는 답변이 95.4%로 나타났다. 이 설문항은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늘리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데 비장애인의 저항이 높을 수 있다는 가정으로 실시되었으나, 예상과는 달리 95% 이상의 사람들이 사회적 비용을 늘이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부금 또는 봉사 활동의 의향에 대해 85.3%가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85% 이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부 또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기부 문화가 발달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 요구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9.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고용기업에 혜택을 주거나(43.0%),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자는 의견도 17.7%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면밀히 살펴볼 때 장애인 노동문제를 여전히 장애인 지원 또는 의무고용제도의 강화 등을 통한 사회적 책임으로 보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은 앞서 언급한대로 가장 차별이 심한 영역으로 개인적인 노력이나 사업주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시사점 및 정책을 제안한다.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조사는 [장애인인권헌장]이 선포된 지 5 년을 맞이하여 실시된 조사임에도 비장애인이 가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수준이었음을 확인했다

둘째, 조사 결과, 장애인이 느끼는 장애 차별과 비장애인이 인지하는 장애 차별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장애 차별이 객관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 본 조사에서 장애 차별의 원인에 대해 사회 인식의 문제 즉 편견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 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 차별 인식조사와 동일할 결과이다. 결국 장애 차별은 편견 해소가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확인했다. 따라서 편견 해소를 위한 장애 인권 교육 등 사회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본 조사 결과 장애 차별 해소를 위해 예산 확대, 법제도 개선,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행 장애인 정책이 장애 차별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현 노무현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생활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의 있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4 개 법률과 장애인인권헌장이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나타나는 장애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 문 】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 고 생각한다	생각해 본적이 없다	모름/ 무응답
		%	%	%	
전 체	(1000)	21.2	71.4	6.4	1.0
▣ 지 역 별 ▣					
서 울	(216)	20.6	72.3	6.0	1.1
인 천/ 경 기	(238)	19.2	75.1	4.6	1.1
대 전/ 충 청	(103)	25.6	67.4	7.1	.0
광 주/ 전 라	(119)	20.8	69.9	8.7	.6
대 구/ 경 북	(105)	26.3	65.6	7.6	.6
부 산/ 울 산/ 경 남	(178)	19.9	70.7	7.5	1.9
강 원/ 제 주	(41)	18.1	78.7	3.2	.0
▣ 성 별 ▣					
남 자	(495)	21.8	71.4	6.0	.8
여 자	(505)	20.5	71.5	6.8	1.1
▣ 연 령 별 ▣					
20 대	(238)	21.9	69.6	7.9	.5
30 대	(258)	31.2	63.1	4.6	1.2
40 대	(220)	22.1	70.8	6.3	.9
50 대 이상	(284)	10.8	81.1	6.9	1.2
▣ 학 령 별 ▣					
중 초 이하	(205)	12.0	75.2	10.2	2.7
고 졸	(389)	23.7	70.2	5.2	.9
대 재 이상	(402)	23.4	71.0	5.4	.2
▣ 직 업 별 ▣					
농 립/ 어 업	(47)	9.4	78.2	10.9	1.5
자 영 업	(175)	21.7	69.6	7.3	1.4
블 루 칼 라	(116)	24.2	73.6	1.7	.6
화이트 칼 라	(150)	28.5	66.3	5.2	.0
주 부 생	(326)	18.7	72.4	7.3	1.6
학 생	(66)	19.9	71.3	8.8	.0
무 직/ 기 타	(122)	20.2	73.5	5.7	.6
▣ 소 득 별 ▣					
150 만원미만	(257)	17.2	74.2	7.2	1.4
150-249 만원	(291)	23.6	71.2	5.1	.0
250 만원이상	(353)	22.1	70.2	6.8	.8
▣ 거주 규모 ▣					
대 도 시	(497)	21.6	70.4	7.1	.9
중 소 도 시	(390)	21.3	72.6	5.0	1.1
읍 면 지 역	(112)	18.9	71.9	8.5	.6

【 Ⅱ 】 연근이나 주변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보거나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모름/ 무응답
		%	%	
전 체	(1000)	68.4	30.0	1.6
■ 지역 별 ■ 서 울 (216) 인 천/경 기 (238) 대 전/충 청 (103) 광 주/전 라 (119) 대 구/경 북 (105) 부 산/울 산/경 남 (178) 강 원/제 주 (41)		71.4 66.5 70.7 69.4 74.1 62.4 67.0	27.7 32.0 28.6 27.7 23.0 35.8 33.0	1.0 1.5 .7 2.8 2.9 1.9 .0
■ 성 별 ■ 남 자 (495) 여 자 (505)		69.2 67.6	29.3 30.7	1.5 1.7
■ 연 령 별 ■ 20 대 (238) 30 대 (258) 40 대 (220) 50 대 이 상 (284)		78.5 69.3 69.7 58.1	21.5 29.8 28.0 38.8	.0 .9 2.4 3.0
■ 학 력 별 ■ 중 졸 이 하 (205) 고 졸 (389) 대 재 이 상 (402)		59.9 67.6 73.8	37.2 30.5 25.9	2.9 1.9 .3
■ 직 업 별 ■ 농 림/ 어 업 (47) 자 영 업 (175) 불 루 칼 라 (116) 화 이 트 칼 라 (150) 주 부 생 (326) 학 생 (66) 무 직/기 타 (122)		56.4 68.9 68.0 72.2 66.9 84.0 63.6	42.1 27.4 30.2 27.8 31.4 16.0 35.2	1.5 3.6 1.8 .0 1.7 .0 1.2
■ 소 득 별 ■ 150 만 원 미 만 (257) 150-249 만 원 (291) 250 만 원 이 상 (353)		59.8 69.6 74.7	36.7 29.4 24.9	3.4 1.0 .4
■ 거주 규모 별 ■ 대 도 시 (497) 중 소 도 시 (390) 읍 면 지 역 (112)		68.8 67.7 69.3	29.6 31.1 28.0	1.6 1.3 2.8

【문】 있다면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시설	노동	교육	이동권	기타	무응답/응답
		%	%	%	%	%	
전 체	(1000)	47.6	41.6	23.3	39.3	3.9	3.6
지역별							
서천/경기	(216)	43.2	41.0	24.1	40.7	5.8	3.2
대전/충청	(238)	50.1	48.9	24.6	40.5	4.6	4.0
광주/전라	(103)	50.4	41.9	24.7	41.7	5.4	.6
대구/영북	(119)	45.3	32.3	27.9	34.2	.6	6.6
부산/울산/경남	(105)	43.2	49.7	27.0	44.2	4.0	2.6
강원/제주	(178)	53.6	37.4	16.2	38.6	2.3	3.2
	(41)	41.5	27.0	16.7	24.3	1.7	6.9
성별							
남자	(495)	46.0	41.9	19.1	39.4	4.3	3.8
여성	(505)	49.2	41.3	27.4	39.2	3.5	3.4
연령							
20대	(238)	46.6	39.2	24.4	40.2	6.4	2.0
30대	(258)	54.3	43.4	22.9	43.0	2.5	2.5
40대	(220)	47.9	41.6	22.3	45.3	3.3	3.0
50대 이상	(284)	42.1	42.0	23.6	30.6	3.4	6.4
학력							
중졸 이하	(205)	41.6	43.8	20.7	29.5	1.9	7.5
고졸	(389)	49.4	36.9	23.5	45.4	3.2	3.0
대재 이상	(402)	48.8	45.3	24.8	38.5	5.6	2.2
직업							
농림/어업	(47)	35.8	37.6	26.0	31.5	4.6	4.6
자영업	(175)	48.9	42.8	19.3	38.6	2.9	4.5
블루칼라	(116)	50.3	46.1	26.2	45.2	7.2	1.4
화이트칼라	(150)	45.7	48.0	26.3	46.0	6.0	.9
주부	(326)	50.2	39.3	25.8	37.8	2.9	3.9
학생	(66)	52.6	30.0	22.3	39.6	3.4	.0
무직/기타	(122)	40.3	41.6	15.4	33.2	2.1	8.7
소득							
150만원미만	(257)	42.6	39.6	19.9	36.6	2.3	4.2
150-249만원	(291)	55.0	41.6	25.9	40.8	2.5	1.6
250만원이상	(353)	45.0	43.1	24.4	43.9	5.2	2.0
거주규모							
대도시	(497)	49.1	43.1	24.9	40.5	4.1	2.6
중도시	(390)	44.8	40.1	21.9	39.6	3.6	5.4
읍면지역	(112)	50.9	40.5	21.3	32.9	3.9	1.9

【 附 】 장애우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례수	인식개선	법제도마련	정책의 변화	예산의 확대	기타	모름/무응답
		%	%	%	%	%	%
전 체	(1000)	44.5	27.0	23.0	36.7	.1	2.8
▣ 지역 ▣							
서 인 선 / 경 기	(216)	46.4	21.0	24.1	38.3	.0	1.7
대 진 / 총 청	(238)	42.3	30.0	28.0	37.7	.0	3.8
광 주 / 전 라	(103)	39.6	35.6	24.7	32.6	.0	2.8
대 구 / 경 북	(119)	45.3	20.1	19.6	34.2	.0	3.4
부 산 / 울 산 / 경 남	(105)	43.1	36.2	20.8	39.9	.0	3.2
관 원 / 제 주	(178)	49.7	24.1	20.4	36.7	.3	1.9
관 원 / 제 주	(41)	37.2	28.4	11.2	31.7	.0	5.5
▣ 성 별 ▣							
남 자	(495)	41.5	25.7	26.1	36.4	.0	1.9
여 자	(505)	47.4	28.3	20.0	37.0	.1	3.8
▣ 연 령 ▣							
20 대	(238)	53.5	23.9	21.8	33.3	.0	2.4
30 대	(258)	50.8	28.2	23.8	34.0	.2	1.2
40 대	(220)	41.3	24.6	26.5	39.4	.0	2.4
50 대 이상	(284)	33.6	30.3	20.5	39.9	.0	5.1
▣ 학 력 ▣							
중 졸 이하	(205)	34.3	29.7	19.9	31.1	.0	6.6
고 졸	(389)	47.4	26.1	23.1	37.1	.2	2.1
대 재 이상	(402)	47.3	26.8	24.7	39.3	.0	1.0
▣ 직 업 ▣							
농 림 / 어 업	(47)	19.5	38.5	26.6	40.7	.0	3.7
자 영 업	(175)	48.7	22.4	26.9	37.2	.0	.8
불 루 람 라	(116)	38.4	28.6	37.3	28.7	.5	2.5
화이트 칼라	(150)	45.3	34.3	17.3	42.3	.0	.0
주 부 생	(326)	46.9	28.1	18.7	36.3	.0	4.6
학 생	(66)	56.8	13.8	19.0	34.2	.0	.0
무 직 / 기 타	(122)	39.4	22.5	23.1	37.5	.0	6.1
▣ 소 득 ▣							
150 만 원 미만	(257)	34.5	30.6	18.5	34.6	.0	5.4
150-249 만 원	(291)	49.4	26.9	27.0	34.9	.0	1.0
250 만 원 이상	(353)	47.8	25.8	23.1	43.1	.2	1.2
▣ 거주 규모 ▣							
대 도 시	(497)	48.6	23.7	24.3	36.5	.0	1.8
중 소 도 시	(390)	42.8	28.7	21.8	37.5	.2	3.4
읍 면 지 역	(112)	31.8	35.5	21.3	34.8	.0	5.7

【 附 】 사립 동네에 장애우시설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찬성합니 다	반대합니 다	모름/ 무응답
		%	%	%
전 체	(1000)	90.6	3.7	5.7
■ 지역 별 ■				
서 인 천 / 경 기	(216)	90.6	3.9	5.6
대 전 / 중 청	(238)	91.8	1.9	6.3
광 주 / 전 라 북	(103)	88.4	3.8	7.7
대 구 / 경 북	(119)	91.9	4.8	3.3
부 산 / 울 산 / 경 남	(105)	88.6	6.8	4.6
강 원 / 제 주	(178)	90.7	3.3	6.0
(41)	90.2	3.2	6.6	
■ 성 별 ■				
남 자	(495)	93.2	2.6	4.2
여 자	(505)	88.0	4.8	7.2
■ 연 령 별 ■				
20 대	(238)	92.1	4.5	3.4
30 대	(258)	91.4	2.8	5.8
40 대	(220)	93.5	1.5	5.0
50 대 이상	(284)	86.3	5.5	8.2
■ 학 령 별 ■				
중 졸 이하	(205)	87.7	4.4	7.9
고 졸	(389)	90.6	2.7	6.8
대 재 이상	(402)	92.1	4.3	3.6
■ 직 업 별 ■				
농 립 / 어 업	(47)	90.3	4.6	5.1
자 영 업	(175)	96.2	1.5	2.3
블 루 칼 라	(116)	91.6	2.8	5.6
화이트 칼 라	(150)	88.8	4.3	6.9
주 부 생	(326)	87.2	4.5	8.3
학 생	(66)	90.9	7.2	1.9
무 직 / 기 타	(122)	92.9	2.4	4.7
■ 소 득 별 ■				
150 만 원 미만	(257)	87.9	4.8	7.2
150-249 만 원	(291)	93.1	2.6	4.3
250 만 원 이상	(353)	91.1	3.5	5.4
■ 거주 규모 별 ■				
대 도 시	(497)	89.9	3.8	6.3
중 소 도 시	(390)	91.2	3.3	5.5
읍 면 지 역	(112)	91.9	4.6	3.6

【 문 】 반대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례수	망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엔지 꺼림칙해서	기타	모름/무응답
		%	%	%	%	%
전 체	(37)	24.2	10.6	47.4	9.4	8.2
■ 지역 별 ■						
서 인 천/경 기	(8)	34.8	.0	46.1	19.1	.0
대 전/충 청	(4)	.0	.0	83.7	.0	16.3
광 주/전 라	(4)	58.5	.0	41.5	.0	.0
대 구/경 북	(6)	.0	32.7	50.0	.0	17.3
부 산/울 산/경 남	(7)	10.1	18.5	35.7	17.3	18.5
강 원/제 주	(6)	40.6	.0	48.4	11.0	.0
	(1)	45.4	54.6	.0	.0	.0
■ 성 별 ■						
남 자	(13)	48.0	11.4	29.2	.0	11.4
여 자	(24)	11.8	10.3	57.0	14.4	6.6
■ 연 령 별 ■						
20 대	(11)	21.1	11.5	55.8	11.5	.0
30 대	(7)	49.9	8.4	25.1	8.4	8.4
40 대	(3)	20.0	20.0	40.0	20.0	.0
50 대 이상	(16)	15.5	9.2	53.5	6.3	15.5
■ 학 력 별 ■						
중 졸 이하	(9)	18.9	23.0	47.1	11.0	.0
고 졸	(10)	11.9	5.7	54.0	6.2	22.2
대 재 이상	(17)	34.4	7.1	43.7	10.6	4.2
■ 직 업 별 ■						
농 립/ 어 업	(2)	.0	66.7	33.3	.0	.0
자 영 업	(3)	.0	.0	77.0	.0	23.0
블 루 칼 라	(3)	18.8	.0	81.2	.0	.0
화이트 칼 라	(6)	71.7	.0	.0	28.3	.0
주 부	(15)	15.2	16.8	50.2	11.1	6.7
학 생	(5)	.0	.0	100.0	.0	.0
무 직/기 타	(3)	50.0	.0	.0	.0	50.0
■ 소 득 별 ■						
150 만 원 미만	(12)	19.6	11.0	56.1	13.2	.0
150~249 만 원	(8)	.0	16.4	70.4	.0	13.2
250 만 원 이상	(12)	33.0	4.8	41.7	14.7	5.8
■ 거주 규모 별 ■						
대 도 시	(19)	33.2	9.7	45.3	11.8	.0
중 소 도 시	(13)	9.4	10.7	52.2	9.7	18.1
읍 면 지역	(5)	28.1	14.1	43.7	.0	14.1

【문】 만약에 자녀가 장애를 가진 학생과 같이 수업을 받게 된다면?

	사례수	괜찮다	싫다	모름/ 무응답
		%	%	%
전 체	(1000)	95.2	3.0	1.8
지역 별				
서인천/경기	(216)	96.3	1.9	1.8
대전/충청	(238)	95.7	2.0	2.3
광주/전라	(103)	95.5	2.0	2.6
대구/경북	(119)	94.4	3.9	1.6
부산/울산/경남	(105)	95.0	3.9	1.2
부산/울산/경남	(178)	94.3	4.6	1.1
강원/제주	(41)	93.1	5.5	1.5
성 별				
남 자	(495)	97.1	2.0	.9
여 자	(505)	93.3	4.0	2.6
연 령 별				
20 대	(238)	96.5	2.9	.5
30 대	(258)	94.7	3.0	2.3
40 대	(220)	96.2	1.2	2.7
50 대 이상	(284)	93.8	4.5	1.7
학 력 별				
중졸 이하	(205)	92.4	4.1	3.5
고졸	(389)	96.5	2.4	1.1
대재 이상	(402)	95.4	3.1	1.6
직 업 별				
농림/어업	(47)	93.2	5.2	1.5
자영업	(175)	98.3	.4	1.4
블루칼라	(116)	98.1	.9	1.1
화이트칼라	(150)	96.8	2.0	1.2
주부	(326)	92.5	4.7	2.8
학생	(86)	96.6	3.4	.0
무직/기타	(122)	93.4	4.5	2.1
소 득 별				
150만원미만	(257)	93.8	2.9	3.3
150-249만원	(291)	96.9	2.9	.2
250만원이상	(353)	96.9	2.4	.7
거주 규모 별				
대도시	(497)	95.3	3.0	1.6
중소도시	(390)	95.6	2.5	2.0
읍면지역	(112)	93.4	4.8	1.8

【 문 】 만약에 기업의 사장이라면, 장애를 가진 신규사원과 일반 신규사원에 차이가 없다면 장애를 가진 신규사원 응시자를 채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사례수	채용할 의사가 있다	채용할 의사가 없다	모름/무응답
		%	%	%
전 체	(1000)	90.0	4.9	5.1
▣ 지역 별 ▣				
서 인 천/ 경 기	(216)	90.9	4.7	4.4
대 전/ 충 청	(238)	89.1	5.5	5.4
대 구/ 울 산/ 경 남	(103)	89.0	4.8	6.2
광 주/ 전 라	(119)	90.9	8.0	1.1
대 구/ 경 북	(105)	87.4	5.4	7.1
부 산/ 울 산/ 경 남	(178)	92.9	1.7	5.4
강 원/ 제 주	(41)	84.6	6.7	8.6
▣ 성 별 ▣				
남 자	(495)	89.5	6.5	3.9
여 자	(505)	90.5	3.4	6.2
▣ 연 령 별 ▣				
20 대	(238)	93.1	3.9	3.0
30 대	(258)	88.0	7.8	4.2
40 대	(220)	90.8	3.0	6.2
50 대 이상	(284)	88.6	4.6	6.7
▣ 학 력 별 ▣				
중 졸 이하	(205)	86.7	5.2	8.1
고 졸	(389)	91.5	3.3	5.2
대 재 이상	(402)	90.7	6.1	3.2
▣ 직 업 별 ▣				
농 립/ 어 업	(47)	86.3	7.7	6.0
자 영 업	(175)	92.0	2.3	5.7
블 루 칼 라	(116)	91.7	4.6	3.7
화이트 칼 라	(150)	85.3	11.3	3.4
주 부	(326)	89.6	3.6	6.8
학 생	(66)	89.3	7.2	3.4
무 직/ 기 타	(122)	94.3	2.4	3.4
▣ 소 득 별 ▣				
150 만 원미만	(257)	91.7	3.8	4.5
150-249 만 원	(291)	91.9	5.4	2.7
250 만 원이상	(353)	90.3	4.8	4.9
▣ 거주 규모 별 ▣				
대 도 시	(497)	90.0	4.8	5.3
중 소 도 시	(390)	90.3	4.9	4.8
읍 면 지 역	(112)	89.2	5.6	5.2

【 문 】 장애우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않다	모름/ 무응답
		%	%	%
전 체	(1000)	95.4	2.8	1.7
■ 지역 별 ■				
서 인 천 / 경 기	(216)	95.9	3.0	1.1
대 진 / 충 청	(238)	95.0	2.1	2.9
광 주 / 전 라	(103)	95.8	3.3	1.0
대 구 / 경 북	(119)	94.1	5.9	.0
부 산 / 울 산 / 경 남	(105)	93.6	2.9	3.5
강 원 / 제 주	(178)	97.4	1.1	1.5
(41)	94.4	4.2	1.5	
■ 성 별 ■				
남 자	(495)	96.8	2.3	.8
여 자	(505)	94.1	3.3	2.6
■ 연 령 별 ■				
20 대	(238)	98.0	1.5	.5
30 대	(258)	97.9	1.8	.2
40 대	(220)	95.5	2.7	1.8
50 대 이상	(284)	91.0	5.0	4.0
■ 학 령 별 ■				
중 졸 이하	(205)	89.6	6.8	3.6
고 졸	(389)	97.3	1.7	1.0
대 재 이상	(402)	97.2	1.9	.9
■ 직 업 별 ■				
농 립 / 어 업	(47)	96.5	3.5	.0
자 영 업	(175)	95.9	2.4	1.7
블 루 칼 라	(116)	97.4	.9	1.7
화이트 칼 라	(150)	95.4	3.8	.8
주 부	(326)	94.9	2.8	2.3
학 생	(66)	96.6	3.4	.0
무 직 / 기 타	(122)	93.5	3.7	2.8
■ 소 득 별 ■				
150 만원미만	(257)	93.0	3.0	4.0
150-249 만원	(291)	96.8	3.2	.0
250 만원이상	(353)	97.4	2.0	.6
■ 거주 규모 별 ■				
대 도 시	(497)	96.0	2.4	1.7
중 소 도 시	(390)	95.2	2.9	1.8
읍 면 지 역	(112)	94.0	4.5	1.5

【 問 】 개인적으로 장애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부금을 내시거나, 사적인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모름/ 무응답
		%	%	%
전 체	(1000)	85.3	11.4	3.2
■ 지역 별 ■				
서 울	(216)	80.4	16.4	3.2
인천/경기	(238)	86.0	11.2	2.8
대전/충청	(103)	84.4	12.4	3.2
광주/전라	(119)	86.2	10.5	3.4
대구/경북	(105)	89.6	6.4	4.0
부산/울산/경남	(178)	86.6	9.9	3.5
강원/제주	(41)	91.0	6.6	2.4
■ 성 별 ■				
남 자	(495)	87.5	10.0	2.6
여 자	(505)	83.2	12.9	3.9
■ 연 령 별 ■				
20 대	(238)	87.1	9.8	3.0
30 대	(258)	88.4	8.1	3.5
40 대	(220)	87.8	10.4	1.8
50 대 이상	(284)	79.0	16.6	4.3
■ 학 령 별 ■				
중 등 이하	(205)	78.6	17.0	4.4
고 등	(389)	84.6	11.9	3.5
대 재 이상	(402)	90.1	7.5	2.4
■ 직 업 별 ■				
농 립/ 어 업	(47)	77.0	15.7	7.4
자 영 업	(175)	93.2	4.5	2.3
불 료 칼 라	(116)	79.5	17.8	2.7
화이트 칼 라	(150)	89.7	5.9	4.4
주 부	(326)	82.9	14.6	2.5
학 생	(66)	89.3	8.8	1.9
무 직/기타	(122)	81.9	13.6	4.5
■ 소 득 별 ■				
150 만원미만	(257)	80.0	15.1	4.9
150-249 만원	(291)	85.6	11.8	2.6
250 만원이상	(353)	89.7	8.2	2.2
■ 거주 규모 별 ■				
대 도 시	(497)	84.3	12.0	3.7
중 소 도 시	(390)	88.4	9.2	2.4
읍 면 지 역	(112)	79.2	16.9	3.9

【 문 】 정부가 기업들에게 지체, 시각, 청각, 농장애 등 장애우의 고용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예, 의무고용 제도를 실시하여 야 한다.	장애우 고용 기업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	아니오, 기업이 자율적으 로 해야 한다.	모름/ 무응답
		%	%	%	%
전 체	(1000)	36.8	43.0	17.7	2.5
■ 지역 별 ■					
서 울	(216)	36.2	44.6	18.0	1.2
인천/경기	(238)	41.1	38.8	17.9	2.2
대전/충청	(103)	36.1	36.3	25.0	2.6
광주/전라	(119)	34.6	46.6	17.2	1.7
대구/경북	(105)	37.5	40.4	18.2	3.9
부산/울산/경남	(178)	35.6	48.4	11.6	4.4
강원/제주	(41)	26.4	48.5	23.7	1.5
■ 성 별 ■					
남 자	(495)	39.5	42.8	15.8	1.9
여 자	(505)	34.1	43.2	19.5	3.1
■ 연 령 별 ■					
20 대	(238)	35.2	49.7	15.0	.0
30 대	(258)	40.2	38.1	18.0	3.7
40 대	(220)	39.9	40.8	17.5	1.8
50 대 이상	(284)	32.6	43.5	19.8	4.1
■ 학 령 별 ■					
중 등 이하	(205)	27.9	42.9	23.9	5.2
고 등	(389)	42.2	37.8	17.1	2.8
대 재 이상	(402)	36.1	48.0	15.2	.6
■ 직 업 별 ■					
농 립/ 어 업	(47)	36.6	40.3	19.4	3.7
자 영 업	(175)	34.7	43.2	19.2	2.8
블 루 칼 라	(116)	32.4	43.8	21.9	1.9
화이트 칼라	(150)	38.5	48.1	10.2	3.2
주 부 생	(326)	37.0	39.2	20.8	3.0
학 생	(66)	39.4	48.3	12.3	.0
무 직/기타	(122)	40.0	43.9	14.8	1.3
■ 소 득 별 ■					
150 만원미만	(257)	34.9	41.5	18.9	4.7
150~249 만원	(291)	38.3	39.3	21.5	.8
250 만원이상	(353)	36.4	48.2	14.4	1.0
■ 거주 규모 별 ■					
대 도 시	(497)	36.1	45.6	16.1	2.2
중 소 도 시	(390)	41.4	37.7	18.1	2.8
읍 면 지역	(112)	23.6	50.0	23.4	2.9



the sixth sense of business™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
안원빌딩 5층 (우. 150-010)
Tel: 3779-4300 Fax: 761-4590

지역/ 동

Taylor Nelson SOFRES

ID

Job No. K31791

장애인 여론 조사

2003.12

CONTACT - VERIFICATION COVER SHEET

응답자 관련

성명 : _____
전화번호 : _____ 기타 연락처 : _____
주소 : _____

면접원 관련

면접일시 : 2003/ 12/

1 차 시도	2 차 시도	3 차 시도
/	/	/

면접진행

시작 시간 : _____ 종료시간 : _____
면접원 성명 : _____ 번 호 : _____

이 조사를 수행한 면접원으로서, 이 조사가 면접원 지시사항과 ICC/ESOMAR 의 국제기준에 맞게 진행되어 정확하고 완전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면접원 서명 :

QUALITY CONTROL

EDITING	VALIDATION	CODING
완성 예 아니오	Date _____	Date _____
결과 양호 보통 불량	Remark _____	Remark _____
Editor # _____	Validator # _____	Coder # _____

인사/소개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테일러 넬슨 소프레스입니다.

저희는 지금 장애우 권익 문제 연구소와 함께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님의 의견은 단지 통계를 내는 데에만 이용되오니 평소의 생각이나 행동을 그대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 일반적인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Q1.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
- ②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③ 생각해 본 적이 없다

Q2. 언론이나 주변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보거나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Q3.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시설
- ② 노동
- ③ 교육
- ④ 이동권
- ⑤ 기타남자

Q4.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인식개선
- ② 법제도마련
- ③ 정책의 변화
- ④ 예산의 확대
- ⑤ 기타

※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통해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Q5. 만약 ○○님이 사는 동네에 장애인시설이 생긴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괜찮습니다
- ② 싫어할 것입니다
- ③ 잘 모르겠다

Q6. 반대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땅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 ②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 ③ 왠지 꺼림칙해서
- ④ 기타()

Q7. 만약에 ○○님의 자녀가 장애를 가진 학생과 같이 수업을 받게 된다면?

- ① 괜찮다
- ② 싫다
- ③ 잘 모르겠다

Q8. 만약에 ○○님께서 기업의 사장이라면, 장애를 가진 신규직원 응시자가 일반 신규직원 응시자와 차이가 없다면 장애를 가진 신규직원 응시자를 채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잘 모르겠다

※ 장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부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Q9.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잘 모르겠다

Q10. ○○님께서서는 개인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부금을 내시거나, 사적인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Q11. ○○님께서서는 정부가 기업들게 휠체어, 시각, 청각, 농장애 등 장애인의 고용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 고용 기업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
- ③ 아니오,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배경질문>

※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DQ1. ○○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DQ2. 거주 규모 구분

- ① 대도시(7개 광역시)
- ② 중소도시
- ③ 읍면(군)지역

DQ3. 올해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8-20 세
- ② 21-30 세
- ③ 31-40 세
- ④ 41-50 세
- ⑤ 51-60 세

DQ4. 성별(문지 말고 목소리로 판단해서 적으세요)

- ① 남자 ② 여자

DQ5. 결혼 여부

- ① 미혼 ② 기혼

DQ6. 귀하의 학력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 ② 중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재학/졸업
- ④ 대학교 재학/졸업
- ⑤ 대학원 재학/졸업 이상
- ⑥ 모름/무응답

DQ7.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임업/어업
- ② 자영업(상업, 소규모 장사, 개인택시운전사 등)
- ③ 판매/서비스직(상점정원, 세일즈맨 등)
- ④ 기능/숙련공(운전사, 선반, 목공 등)
- ⑤ 일반 작업직(현장직업, 청소관리, 경비원 등)
- ⑥ 사무기술직(차장이하 사무직, 기술직, 교사)
- ⑦ 경영/관리직(5급이상공무원/기업체부장이상)
- ⑧ 전문/자유직(변호사, 의사, 건축사, 대학교수)
- ⑨ 가정주부(가사에만 종사하는 부인)
- ⑩ 학생
- ⑪ 무직
- ⑫ 기타
- ⑬ 모름/무응답

DQ8. ○○님 닥의 보너스를 포함한 월평균 가구소득 은 얼마입니까??

- ① 100 만원 이하
- ② 100-149 만원
- ③ 150-199 만원
- ④ 200-249 만원
- ⑤ 250-299 만원
- ⑥ 300-349 만원
- ⑦ 350-399 만원
- ⑧ 400 만원 이상
- ⑨ 모름 / 무응답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사 소개: TNS(Taylor Nelson Sofres)

회사명	테일러 넬슨 소프레스	대표자	David. A. Richardson
회사 형태	주식회사(현지투자법인)	전문 분야	여론조사 및 마케팅조사
설립 연도	①佛 : 1963년 ②韓國 : 1984년	상근 직원	200 명
매출액	2000 년 135 억원, 2001 년 159 억원, 2002 년 190 억원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 안원빌딩		
연락처	전화번호: 02-3779-4300, 팩스번호: 02-761-4590		
특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02 년 기준, 전 세계순위 4 위, 사회 및 정치 여론조사 부문 1 위 2. 2001 년 현재 세계 52 개국 150 여개 현지법인 네트워크 보유 3. 2002 년 6 월 TNS-SBS, 3 대 지방선거 출구조사(당선자 100% 적중) 4. 2002 년 8 월 TNS-SBS, 재보궐선거 출구조사(1,2 위 득표자 100% 적중) 5. 2002 년 12 월 TNS-SBS, 16 대 대선 출구조사(당선자 예측성공, 평균오차: 0.4%p) 6.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정치, 사회지표 제공 - 조사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세계적 첨단 모델 보유 - ICC(국제상공회의소)/ESOMAR(유럽마케팅여론조사협회) 조사규정 준수 		

세계적 전문 조사기관 TNS

- TNS는 1963년 프랑스에 설립된 소프레스를 그 전신으로 하고 있으며, 1997년 영국의 테일러 넬슨과의 합병을 통해 세계적인 조사기관으로 성장해 왔음.
- 2002년 기준 세계 3위권의 조사 전문 기관으로, 현재 세계 52개 국가에 150여 개의 현지 법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
- 30여 년 간 쌓아온 노하우와 세계 각국에서 검증된 선진 조사기법을 토대로 조사의 신뢰도 제고와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특히 사회 및 정치 여론 조사 부문에서 세계 1위의 조사 기관으로 다양한 조사 기법과 첨단 설비, 우수 연구 인력을 구비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에서 정치/사회 조사와 관련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음.
- TNS Korea는 TNS 그룹의 한국 현지 법인으로, 2002년 현재 매출액 190억 원, 상근 직원 200명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2002 TNS-SBS 3대 지방선거 출구 조사 및 재·보궐 선거 출구 조사, 16대 대선 출구 조사를 수행한 바 있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개: RIDRIK

단체명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이 성 재
설립 연도	1987년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 1동 924-14 근복빌딩 6층		
연락처	전화번호: 02-521-5364, 팩스번호: 02-584-7701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 안원빌딩		
설립 목적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987년 장애우에 대한 제반 문제를 연구하고 장애우 복지 증진과 권리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장애우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삶의 실현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장애우를 차별하는 법과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올바르게 제·개정하고, 장애우문제의 현황 조사분석과 장애우 복지정책 개발, 장애우 인권 차별에 대응, 국내외 장애우 관련 자료 수집 분석, 장애관련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장애 관련 전문 서적의 출판사업, 월간 '함께걸음' 발간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장애우인권센터, 장애우가족지원센터, 장애우문화센터, 장애우의료센터, 영 3 어린이집, 월간 함께걸음의 부설기관과 전국 4개의 지소가 있습니다.		
주요 연혁	1987. 12.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 1988. 3. 20 월간 '함께걸음' 발행 1991. 9. 17 제 1기 장애우대학 개설 1992. 1. 4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1995. 8. 28 제 1회 한·일장애인국제교류대회 주최(2000년 6회까지 개최) 1997. 3. 19 한국여성단체연합 '올해의 디딤돌 상 수상' 1999. 10 '99 희망새를 날리자' (실직장애우와 함께하는 시민 한마당) 2000 '장애우인권센터' 개원 2000. 7-8 '2001 휴가철 맞이 톨게이트 장애우인권기금모금' 활동 2001. 10 1588-0420 장애인의 전화 개통 2002. 2 월드컵 개최 도시 10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2002. 12 15주년 창립 기념식		



PRESS INFORMATION

● 날짜: 2003년 12월 3일

TNS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동기획

장애인 인권에 대한 비장애인 인식 조사

마케팅 및 여론 조사 기관 TNS는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와 함께 전국 일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비장애인' 인식'에 관한 여론 조사를 지난 12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에 걸쳐 실시함.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1.4%

'주변에서 장애인이 차별받는 것을 목격했다' 68.4%

우리나라 일반인 다수(71.4%)는 장애인에 대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2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실제 생활상에서 일반 국민 10명중 7명은 장애인이 차별받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어 여전히 우리 사회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장애인 시설 미비(47.6%), 장애인 노동문제(41.6%) 그리고 이동권 문제 (39.3%) 가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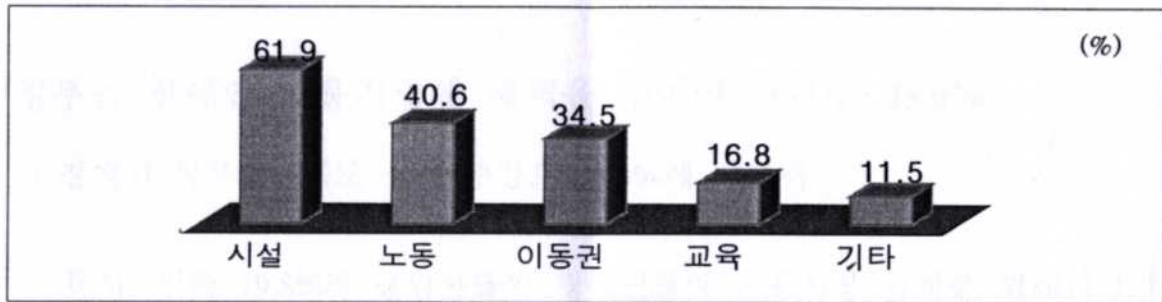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44.5%)', '예산의 확대(36.7%), 법제도 마련 (27.0%) 가 시급한 과제인듯'

일반인들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장애인관련 문제점으로는 '장애자 시설문제 (47.6%)', '장애자 노동문제(41.6%)' 등이 높게 언급되었으며,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

제(39.3%) 역시 적지않은 문제점으로 거론됨.(복수문항)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44.5%)과 장애인 관련 예산 확대(36.7%), 법 제도 마련 (27.0%) 등의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심각한 장애인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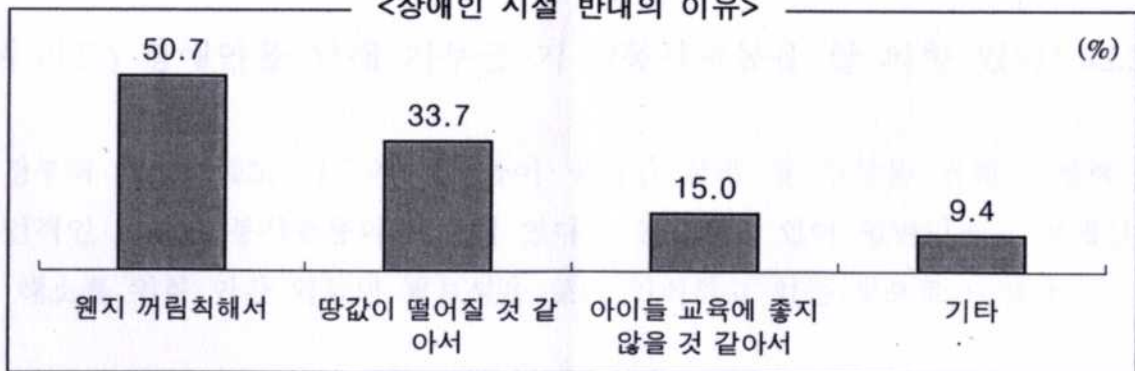
본인이 사는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 생긴다면? “괜찮다(90.6%)”

-일부 “웬지 꺼림칙해서”, “땅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의 반대 인식도 남아있어

‘본인이 사는 동네에 장애인시설이 생기는 것’에 대해 대다수(90.6%)의 국민들은 ‘수용할수 있다/괜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보다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웬지 꺼림칙해서’, ‘땅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등의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부정 반응도 일부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장애인 시설 반대의 이유>



(자기 동네 장애인 시설 건립 반대자 base=37명)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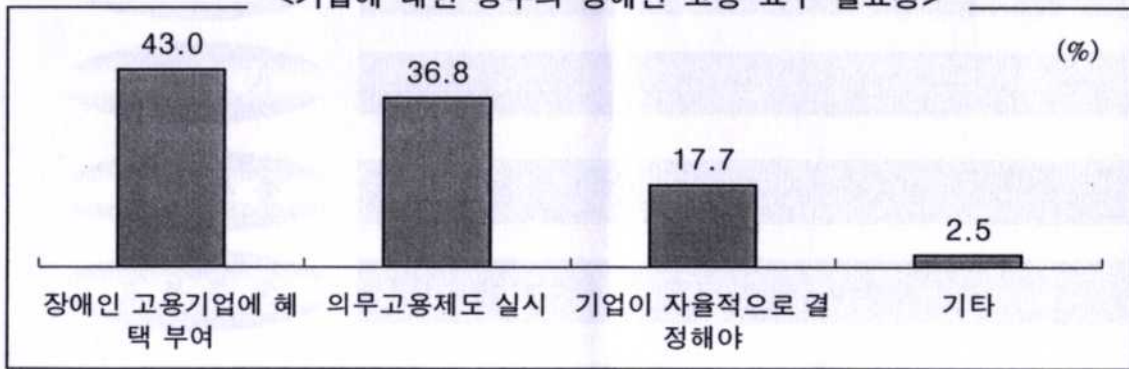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95.4%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장애인 차별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정부는 장애인 고용기업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 43.0%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실시 주장도 36.8%에 이르러

특히, 전체 79.8%의 응답자들이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고용기업 혜택 부여(43.0%)’, ‘의무고용제도 실시(36.8%)’의 의견이 많았으며, 반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은 17.7%의 소수에 그쳐 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장애인 고용 요구 필요성>



‘(우리도) 장애인을 위해 기부금 기부/봉사활동을 할 의향 있다’, 85.3%

정부의 역할외에도 다수의 국민들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기부나 봉사활동의 의향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 일반인들도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민간 역할의 필요성을 보다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개요 첨부

I. 조사목적 및 설계

본 조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TNS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됨.

[1] 조사 방법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2] 표본 설계

모 집 단

만20세 이상 전국의 성인 남녀

표본 크기

1,000명

표본 추출

비례할당에 의한 층화 무작위 추출법

표본 추출

± 3.1% (95% 신뢰수준)

[3] 조사 진행

조사 시점

2003년 12월 1일 ~ 2일

조사 기관

TNS

* 조사결과 및 보도자료 문의 : TNS 마케팅조사본부 신익태 대리(02-3779-0570)